

2018. 1. 1.~2018. 12. 31.  
<http://council.haeundae.go>.

제12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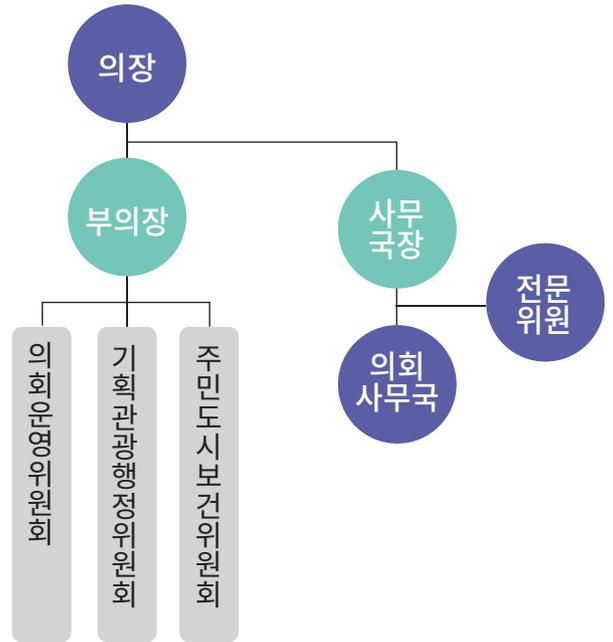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

# HAEUNDAE COUNCIL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 7대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의원현황 (2016. 7. 1~2018. 6. 30.)

조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원 : 17명(지역구 15명, 비례 2명)  
직원 : 17명



의장 정 성 철  
Chairman **Jeong Seong Chel**



부의장 이 명 원  
Vice Chairman **Lee Myung Won**



서 정 학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조 영 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Jo Young Jin**



임 말 속  
주민도시보건위원회장  
Member **Lim Mal Suk**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심윤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him Yun Jung**



**손유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hon Yu Jung**



**김정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Jeong Wook**



**최영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Choi Young Gon**



**서창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Chang Woo**



**서강식**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Seo Kang Sik**



**홍성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Hong Seong Un**



**이문환**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Lee Moon Hwan**



**김삼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m Soo**



**황병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Hwang Byung Du**



**오경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O Kyeong 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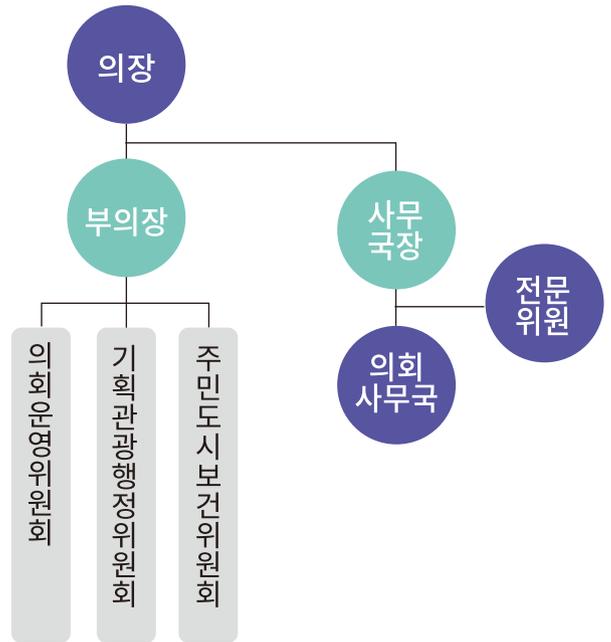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You Jum Ja**

# HAEUNDAE COUNCIL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 8대 CURRENT MEMBERS OF THE COUNCIL 의원현황 (2018. 7. 1~2020. 6. 30.)

조 직 : 3상임위원회, 1사무국  
의 원 : 18명(지역구 16명, 비례 2명)  
직 원 : 18명



의장 이 명 원  
Chairman **Lee Myung Won**



부의장 임 말 속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Vice Chairman **Lim Mal Suk**



원 영 속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Won Young Suk**



조 영 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Member **Jo Young Jin**



김 정 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  
Member **Kim Jung Wook**

우리는 해운대구민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작은 약속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hrough practicing transparent and clean activities one by one,  
we will make Haeundae a place to live well. We are your workers.



**문 현 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Moon Hyun Shin**



**김 경 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Kyung Ho**



**최 은 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Choi Eun Young**



**김 상 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Sang Soo**



**김 백 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Baek Chul**



**박 성 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Park Sung Sik**



**장 성 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Jang Sung Chul**



**이 상 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Lee Sang Gon**



**박 기 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Park Ki Hoon**



**김 성 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Kim Sung Gun**



**서 정 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Seo Jung Hak**



**정 순 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Member **Jung Soon Se**



**김 혜 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Member **Kim Hye Jin**

세대와 공감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의회



## Contents

- 5 인사말
- 6 해운대구 현황
- 7 의회연혁
- 8 의안처리
- 16 의원발의
- 23 구정질문
- 33 5분 자유발언
- 50 의원칼럼
- 64 의정스케치

제 **12**호  
(2018.01.01~2018.12.31)

**발행인** 의장이명원  
**발행** 해운대구의회  
**편집** 의회사무국

# Greetings by Chairman

---



의장 이명원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년은 다사다난했던 제7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구민의 새로운 대표들이 모여 구성된 제8대 의회가 시작되는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제8대 의회는 지난해 7월 원만한 원구성을 통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기록될 정도로 희망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관계처럼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도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구의원의 밥그릇이 아니라 구민의 밥그릇에 집중하는 민생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나오는 의회의 기능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좀 더 나은 대안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대안 발굴을 위해 구민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더 많이 찾아가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해운대의정은 지난 1년간의 해운대구의회 의 성과를 구민 여러분께 지면으로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운대구 현황

## The present condition of Haeundae Gu

**해운대**는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수도 부산의 관광지로 신라말의 석학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의 자(字)“해운(海雲)”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는 해수욕장, 동백섬, 달맞이 언덕, 해운대 온천 등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이 있는 사포지향(四抱之鄕)의 고장이며 관광의 도시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서 달맞이온천축제, 모래축제, 바다축제 등 사계절 축제가 열리고 아쿠아리움, 요트경기장, 벅스코와 미술관, 갤러리, 추리문학관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이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중심도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초고층 주거단지의 마린시티와 센텀 시티, 국제전시·컨벤션 센터인 제 1,2벅스코가 조성되어 있는 세계적 명품 도시입니다.

지하철 2·3·4호선, 광안대로, 부·울고속도로 복선화에 이어 센텀~만덕 도시고속화 도로가 확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동부산권 교통·물류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인 구 : 약 409,858명

면 적 : 51.45km<sup>2</sup>(부산km<sup>2</sup>의 6.7%)

행정기구 : 4국 1실 1관 21과 102담당 1보건소(2과2지소) 3사업소

공 무 원 : 997명(공무원1인당 주민수 411명)

재정규모 : 5,722억원 (2018. 12. 31.기준)





해운대의정

# 의/안/처/리/현/황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http://council.haeundae.go.kr)

◆ 의안처리현황

◇ 총괄

구분	합계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동의안	건의·결의·추천안	규칙안	기타
계	113	48	6	24	1	0	34

◇ 회기별 현황

회기별	회 기 (일수)	심의처리		비고
		조례	기타(조례외)	
구 분	합 계	48	65	
제232회 임시회	2018.02.07. ~ 2018.02.13.(7일)	14	8	7대
제233회 임시회	2018.03.20. ~ 2018.03.27.(8일)	11	7	
제234회 임시회	2018.07.03. ~ 2018.07.05.(3일)	0	4	
제235회 임시회	2018.07.24. ~ 2018.07.31.(8일)	1	9	8대
제236회 정례회	2018.09.04. ~ 2018.09.14.(11일)	4	5	
제237회 임시회	2018.10.16. ~ 2018.10.23.(8일)	7	10	
제238회 정례회	2018.11.12. ~ 2018.12.14.(33일)	11	22	

◇ 의안심의 결과

구분	발의·제출			심의결과				기타 (보류,철회등)	
	계	의원	구청장	계	원안	수정	부결		
계	112	48	64	113	101	10	2	0	
조례안	소계	47	15	32	48	41	6	1	0
	제정	20	8	12	21	17	4	0	0
	개정	27	7	20	27	24	2	1	0
	폐지	0	0	0	0	0	0	0	0
예산안/기금	6	1	5	6	1	4	1	0	
승인안	14	6	8	14	14	0	0	0	
동의안	7	0	7	7	7	0	0	0	

## 의안처리현황

구분	발의·제출			심의결과				기타 (보류, 철회 등)
	계	의원	구청장	계	원안	수정	부결	
건의안	0	0	0	0	0	0	0	0
결의안	1	1	0	1	1	0	0	0
추천안	0	0	0	0	0	0	0	0
규칙안	0	0	0	0	0	0	0	0
의견청취	5	0	5	5	5	0	0	0
구정질문	6	6	0	6	6	0	0	0
5분 자유발언	12	8	4	12	12	0	0	0
기타	14	11	3	14	14	0	0	0

## 제232회 임시회

(2018. 2. 7 ~ 2. 13)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합지회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우동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우동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김삼수, 최영근, 서강식, 유점자)

## 제233회 임시회

(2018. 3. 20 ~ 3. 27)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
-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 ◇ 반송119안전센터(구유지)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협의 동의안

###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구청질문(이명원)

### 기타

- ◆ 구청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서강식, 강동우, 남정흔, 이권제)
- ◆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제234회 임시회

(2018. 7. 3 ~ 7. 5)

- ◆ 의 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의장선출(이명원)
- ◇ 부의장선출(임말숙)
- ◇ 상임위원장선출(의회운영 위원숙, 기획관광행정 조영진, 주민도시보건 김정욱)
-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 의회운영위원회 : 원영숙, 박기훈, 김경호, 최은영,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곤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 제235회 임시회

(2018. 7. 24 ~ 7. 31)

- ◆ 의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좌동재래시장 자주식 주차장 건립)
-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반여3동 노인복합복지시설건립)
-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관광안내소 준공)
- ◇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공립어린이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공립어린이집(국공립 전환)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김백철)

### 기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정학, 최은영, 문현신, 김상수, 이상곤, 박기훈, 정순세, 김혜진)

## 제236회 정례회

(2018. 9. 4 ~ 9. 14)

- ◆ 의원 발 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수정
-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서정학)

### 기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정학, 김백철, 원영숙, 장성철, 이상곤, 김성군, 정순세, 김혜진)

## 제237회 임시회

(2018. 10. 16 ~ 10. 23)

- ◆ 의원 발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관광행정위원회)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주민도시보건위원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
-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공립어린이집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반송1동 어린이집, 반송2동 어린이집)
- ◇ 공립어린이집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자이2차 어린이집)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정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 (박기훈, 김백철, 김정욱)

### 기타

-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회와의 우호협력 도시 협정체결안

## 제238회 정례회

(2018. 11. 12 ~ 12. 14)

- ◆ 의원 발의
- ◇ 구청장 제출

### 심의안건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관광행정위원회)
-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주민도시보건위원회)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 ◇ 2019년도 예산안 ▶ 수정
- ◇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 ▶ 부결
-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
- ◇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

### 구청질문 / 5분자유발언

- ◆ 5분자유발언(임말숙, 김상수, 최은영, 문현신, 원영숙, 서정학)
- ◆ 구청질문(원영숙, 장성철)

### 기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임말숙, 김백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 ◆ 구청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 ◇ 시정연설

해운대의정

# 의/원/발/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http://council.haeundae.go.kr)

◆ 의원발의 의안(조례, 규칙 등) 현황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32회 임시회	황병두 이문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심윤정 정성철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홍성운 이명원 김정옥 최영곤 황병두 오경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말숙 김정옥 홍성운 황병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창우 정성철 이명원 서정학 조영진 임말숙 심윤정 손유정 김정옥 홍성운 이문환 김삼수 황병두 오경미 유점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제233회 임시회	김삼수 이명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서정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제236회 정례회	최은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회운영
제237회 임시회	전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 의원발의

회기별	발의의원	의안명	소관 위원회
제237회 임시회	박기훈 원영숙 김상수 이상곤 정순세 김혜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회와의 우호협력 도시협정 체결안	의회운영
제238회 정례회	김경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기획관광행정
	김백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광행정
	임말숙 김혜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주민도시보건
	문현신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부지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	본회의
	전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의회운영
	최은영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	본회의

**황병두**

의원  
외 1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 지 조례제명 변경을 통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립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 하지 않게 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과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심윤정**

의원  
외 9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 지 구단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프로그램 조정 및 개발, 주민자치회간 네트워킹 강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함.

**홍성운**

의원  
외 5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취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외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 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임말숙**

의원  
외 3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취 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 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여 이자율이 하향됨에 따라 우리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서창우  
의원  
외 14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 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구민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않을 권리 등을 단순히 나열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민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삼수  
의원  
외 1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취 지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서정학  
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 지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의원정수가 17명에서 1명 증가한 18명으로 변동되어 각 상임위 및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최은영  
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취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전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취 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며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제재수단 등)을 반영하여 금지위반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고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박기훈

의원  
의 5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의회와의 우호협력 도시 협정체결안

취 지 해운대구의회와 외국도시 의회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제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글렌데일시의회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자 함.

김경호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취 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백철

의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 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24세까지 감면대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 유도 및 체육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 임말숙

의원  
의 1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취 지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로서,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 문현신

의원

### 옛 해운대역사 정거장부지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

취 지 94%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역사부지와 철도부지는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은 분노를 느끼며, 정거장 부지에 대한 상업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함.

## 전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안

취 지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해운대구의회의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를 규정하고자 함.

## 최은영

의원

###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

취 지 우리 해운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있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행정의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조화를 균형있게 유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가진 공단이 필수불가결함. 또한 공단 설립은 해수욕장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함. 이런 필요성에 기반하여 공단 설립을 우리구에 도입할지 말지 검토해보자는 타당성 용역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구의 발전을 늘 고민해야하는 우리구 의회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이 용역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검토는 꼭 이루어져야 함.

# 해운대의정

## 구정질문

### ◆ 구정질문현황

회기별	질문자	내 용	비 고
제233회 임시회	이명원	“꽃의 내부”철거 관련	7대
제238회 정례회	원영숙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8대
	장성철	반여2·3동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은?	



이명원 의원

2018. 3. 26. 제233회 임시회

## “꽃의 내부”철거 관련

**Q** ‘꽃의 내부’를 철거하게 된 이유가 뭐니까?

**A** 태풍차바(Chaba)로 인해서 작품이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미술협회의 조언을 듣고 철거하였는데, 철거 시 일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구민께 사과드립니다.

**Q** 답변으로 미뤄봤을 때 작품훼손이 철거의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A** 덧붙인다면 해풍, 염분,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한 작품 훼손과 다수 민원인들의 작품 철거 또는 이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Q** 제가 알기로 접수된 민원은 10건 미만인데.. 우리 구에는 공공조형물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A** 64종입니다.

**Q** 조례에 따르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총괄 부서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A** 이행하고 있습니다.

**Q** 총괄부서에 통보된 공공조형물 관리계획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A** 예.

**Q**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A** 총괄부서는 관광문화과입니다.

**Q** 주관부서는 어디지요?

**A** 주관부서는 그 공공설치물을 설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Q** 관리계획을 올해 2018년 2월 말까지 총괄부서인 관광문화과에 통보했던 주관부서는 몇 개 부서입니까?

**A**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5개 부서 정도 됩니다.

**Q**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철거 계획이 없었습니까?

**A** 그때는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Q**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지요. 2016년도 ‘차바’가 오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태풍 ‘차바’가 왔고, ‘꽃의 내부’가 훼손되어서 훼손된 ‘꽃의 내부’를 철거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까?

**A** 그렇습니다.

**Q** 그러면 2017년 3월에 제정되었던 조례가 검토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A** 철거 결정 시기는 1월입니다. 비엔날레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비엔날레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쪽에 손상된 부분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 하니까 소유권이 해운대구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 나름의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다음 미협에 알아본 것은 거기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전문가한테 다시 자문을 구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3월에 그 조례가 된 것은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Q**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거나 한참 뒤에 제정되었으면,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제정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설득되기 어렵습니다. ‘차바’로 인해서 ‘꽃의 내부’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전망대를 설치하자고 결정 하셨는데, ‘꽃의 내부’가 있었던 장소 말고, 최적의 설치 장소는 없었습니까?

**A** 바다를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몇 두세 군데 물색을 했었습니다.

**Q** 미협이나 전문가 쪽에서는 복원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재설치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리셨지요?

**A** 예, 그렇습니다.

**Q** 재설치 의사결정은 언제 내리셨지요?

**A** 1월 말쯤이나 2월 초쯤이지 싶습니다.

**Q** 그러면 재설치도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진행된 것이네요? 조례가 3월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A** 그 부분은 재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재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해야 되고, 하게 되면 조례에 심의를 해서 다시...

**Q** 국장님, 철거는 몇 월에 하셨지요?

**A** 철거는 12월에 했습니다.

**Q** 재설치가 바로 1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국장님 12월에 철거하시고, 한 달도 안 되어서 바로 재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맞습니까?

**A** 예, 그렇습니다.

**Q** 오픈하임의 유족은 몇 월에 만나셨지요?

**A** 2월에 만났습니다.

**Q** 철거할 당시에는 조례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이렇게 보집니다. 당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항의 차원으로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의원님 다수가 공유하게 되었는데, 유족을 만나는 과정에서 조례를 보시면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밟도록 해 놓았는데, 밟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재설치를 하겠다는 정책결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대 의회가 본예산에서 또는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산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전에 유족하고 혹시 재설치하기로 계약서는 체결했습니까?

**A** 합의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Q** 그냥 구두합의만 했습니까?

**A** 예.

**Q** 구두합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때도 비엔날레나 미협에 구두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책임이 오롯이 우리 구에 와버렸지 않습니까?

**A** 예.

**Q** 이분들하고의 합의에 있어서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합의가 안 됐을 때, 나중에 구두합의를 반복하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공식문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Q** 그러니까 우리가 재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보냈고, 저쪽에서도 재설치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A** 그렇지요.

**Q**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시비도 안 되고, 구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A** 일단 국제적인 어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구비 조달이 꼭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Q**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조달이 안 됐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저쪽 유족 측에서 우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 배상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A** 물론 소송 같은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예 실추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Q** 합의를 하시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제장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재설치를 하겠지만 의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심의 의사라든지 의회의 결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를 그렇게 썼습니까?

**A**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Q** 서양은 계약 사회입니다. 자꾸 구두, 구두하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재설치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례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당연히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서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고, 전망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철거한 이 부분에 재설치를 한다면 폐기를 능가할만한 재설치의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위치는 조금 변경됐지만 재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A**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못지않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철거를 했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재설치 약속을 유족과 했고,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 중에서 조례가 철저히 폐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A** 저는 철저히 폐기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Q** 조례 제14조제5항을 보면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해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설치는 이전되는 것이지요?

**A** 예, 그렇습니다.

**Q** 그러면 이전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괄부서에 통보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되어있습니다.

**A** 이전을 할 때, 다시 복원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Q** 이미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전하여야 할 사유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으로는 유족과 계약을 한, 합의를 한 그 시점에 이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 그러니까 이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이전 설치를 하기 전까지를 사유 발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사전 답변요지서에꽃의 내부철거와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는 다른 제도적인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A**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나름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주의 또는 무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반기별로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다 담겠습니다.



원 영 숙 의원

2018. 11. 30. 제238회 정례회

## 1인견적 수의계약의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Q**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물품, 공사, 용역) 계약은 총1,388건 183여억 원입니다.

2017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657건에 163여억 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한 업체가 3건 이상 계약한 건수가 1,118건, 한 업체가 10건 이상 계약한 경우는 27개 업체로 525건, 심지어 18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13개 업체로 352건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내용이 부실합니다. 정확한 주소도 알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계약정보시스템은 공무원이 업체명, 계약 금액, 주소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부 재정프로그램인 이호조시스템 상에 입력한 내용 중 필요 부분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여주는 연동 시스템입니다.

이호조시스템상 상세 주소만 표기되는 등 미흡한 점이 몇 군데 발견되었고, 유지 보수 업체에 즉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Q** 두 번째, 1인 견적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이 있습니까?

**A**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문성과 사후 관리 등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Q** 세 번째, 업체 선정 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지와 2천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입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보유가 불확실한 업체로 의심되는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A** 사업 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 부서에서는 업체의 결격사유 즉,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공사 관련 해당 면허 소유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계약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면허를 확인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Q** 네 번째, 동일인 업체대표가 상호를 바꾸며 수의계약한 사례입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10건이나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A** 확인 결과, 동일인이 업체의 대표가 맞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사업체의 명의를 변경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적영역이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며, 전문성과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에 대한 공사 효과성에만 치중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Q** 다섯 번째, 동일인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

**A** 두 업체는 동일업체로 보기 어려우며 대표자 성명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산 상 수정을 완료하였고 주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인 만큼 앞으로는 업체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 여섯 번째, 동일업체로 보이는 회사가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구분하여 기재되어 97건과 2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피하고자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이 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내용에는 감만동 소재로 되어 있고,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에는 반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A** 동일 업체가 맞으며, 기존 거래통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를 삭제하지 않고 추가로 등록하여 업체 이름이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호조를 비롯한 계약정보시스템 등에 업체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 일곱 번째, 우리 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민선 7기 출범과 동시 청렴한 공정 문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계약 심사 강화, 청렴서약서 징구, 부패 관련자 무관용 원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Q**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구 관내 업체와 최소한 90% 이상 계약해 주십시오.

**A** 기장군은 입찰을 하면 관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데, 자치구는 부산시 전역에 한정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Q** 2,200만원 이하 소규모 계약을 2~3건씩 묶어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입찰 견적계약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A** 질의 내용 전부가 전기 공사인데, 특성상 2,000만 원 이하의 긴급공사가 많습니다. 가급적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A** 물품 구입의 경우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공사의 경우 작은 건을 모아 공동 발주를 하는 것은 장소, 여건, 시기 등의 차이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 성 철 의원

2018. 11. 20. 제238회 정례회

## 반여 2·3동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은?

**Q** 부산광역시 1972년부터 1975년까지 구덕수원지 수재민, 좌천동·영주동·초량동 고지대 철거민 약 4,000여세대가 이곳에 이주시켰습니다. 이주민이 모여사는 반여2·3동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영세민촌으로 전락하였고 오랜 기간 관계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해 왔습니다. 그 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을 만들어 땀질식으로 3층, 4층 증축하여 살게 하다 보니, 지금은 손을 댈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이주지역인 반송은 전임 청장님 재임시절부터 반송문화놀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시행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여2·3동 지역은 그런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예산 투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우리 구의 반송2동이 선정되어 1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반여2·3동 지역주민들은 더욱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여2·3동과 반송동의 균형발전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 묻겠습니다.

- ① 앞으로 우리 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방향
- ② 반여2·3동 지역발전 방향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행 사업 설명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수렴 사례
- ③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종합계획 수립계획 시기
- ④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구청장님의 견해

**A** 반송2동의 뉴딜사업인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블랭크(Blank) 플랫폼 사업은 정책이주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폐·공가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대가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족형 도시재생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여2·3동 지역에는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4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18년까지 반여2동 복합커뮤니티센터·무지개이야기방 등을 건립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단기적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가를 매입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청년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하고, 공가 리모델링 및 가로주택정비 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반여지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7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행하였으며, 1991년 이후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시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운대의정

# 5/분/자/유/발/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http://council.haeundae.go.kr)

## ◆ 5분자유발언현황

회기별	발언자	내 용	비 고
제232회 임시회	김삼수	문화도시 해운대를 위한 제안	7대
	최영곤	달맞이언덕 난개발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	
	서강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반여동 노외 주차장 조성 건의	
	유점자	문화재급 혜택 받는 더베이101	
제235회 임시회	김백철	하천관리팀 신설에 관하여	8대
제236회 정례회	서정학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지연 대처 촉구	
제237회 임시회	박기훈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우리의 의지	
	김백철	적시적소에 대처하는 효율적 행정을 바라며	
	김정욱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마린시티가 위험하다	
제238회 정례회	임말숙	해운대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에 대한 제언	
	김상수	동백섬에는 동백꽃이 없다	
	최은영	좌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제안	
	문현신	옛 해운대역! 상업개발 아닌,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품에	
	원영숙	마린시티, 안전거리 확보가 해운대 관광자원이다	
	서정학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전주전선 정비대책 마련	



## 문화도시 해운대를 위한 제안

제232회 임시회 / 2018. 2. 7. 김삼수 의원

최근 해운대구는 구남로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세계적 설치 예술 작가인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를 민원이 잦다는 이유로 철거하여 폐기 처분한 것을 두고 연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현실을 접하면서 과연 문화와 어우러진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운대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당 조례의 14조5항에 명시된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에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당 부서의 6급 공무원은 공사 중 철거된 펜스를 본인의 지인 소유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해당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다가 언론의 질타가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자 최초 보도 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작가의 유족들을 만나 양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유족 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낭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구청장은 해외교류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고, 수행과 통역을 위해 가는 직원들의 여비는 어디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일은 결코 유족들과의 합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수립·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나 예술작품을 바라보는 구청장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하드웨어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엮어낼 때 비로소 자리를 잡는 것이며, 예술 작품 또한 수많은 시간과 주변의 환경이 그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문화와 예술 작품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달맞이언덕 난개발 공론화로 해결하자

제232회 임시회 / 2018. 2. 13. 최영곤 의원

동양의 몽마르뜨언덕이라고 불리는 달맞이언덕 주변이 상전벽해를 능가하는 대형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는지? 이 사업들은 교통문제, 난개발, 특혜성, 공론화 결여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교통문제. 달맞이언덕 주변은 미포-송정간 블루라인파크(스카이바이크, 풍경열차, 관광편의시설 등), 미포-구덕포간 연안공원조성(구름다리, 인공폭포, 범선전망대 등 15개), 청사포 하늘숲길 조성, 청사포 민간공원 조성(반려처분) 등의 사업이 계획돼 있고, 인접한 우중동 구간은 LCT, 소대형 아파트건축(총 1만여 세대) 외 여러 교통유발 요인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난개발문제. 이 사업들은 보존 가치가 있는 달맞이언덕의 훼손이 야기되는 일이다. 개발이나 보존이냐에 대한 주민의 논의와 일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셋째, 특혜성 문제. 블루라인파크(이하 BLP)사업과 관련한 문제인데 3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BLP는 정거장이 설치되는 미포, 청사포, 송정 세 곳의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민자사업자인 BLP에 대한 특혜다. 따라서 해운대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의회는 엄격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특혜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또 미포정거장 일대의 진·출입도로(120m) 4차로의 확장 개설도 BLP에 대한 특혜다. 그 사업비는 시비나 구비지원이 아닌 BLP가 부담해야 한다. 송정정거장 진출·입 현황도로의 확장(6-7m)도 특혜 소지가 있다. 그리고 BLP사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230억 규모의 미포연안정비(공원화)사업도 그렇다. 처음 BLP에서 계획한 사업이 연안정비사업비(국·시·구비)로 충당한 것이 증거다.

넷째,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BLP사업의 경우 5차례에 걸친 원탁회의 결과 사업안이 도출되었듯이 달맞이언덕 주변 대형공원화사업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본 의원은 이상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주문한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용역사에 해운대 교통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 중인 사업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본 의원의 주문에 의해 편성된 올해 교통영향분석 1억 원의 예산집행은 의미가 없는 연말 결과 도출(11월)이 아닌 조기결과 도출을 통해 당장 블루라인파크 사업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왕 시작할 사업이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BLP사업은 개별사업으로 거론될 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전체 공원화사업의 그림으로 볼 때 상단 달맞이언덕과 하단 연안의 상호이동을 차단하는 장애물(스카이바이크용 7m 궤도구조물)이 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따라서 이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와 사안들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할 주민대표, 전문가, 관련 공무원, 의회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반여동 노외주차장 조성 건의

제232회 임시회 / 2018. 2. 13. 서강식 의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88호로 1979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반여동 1602-5~9번지 일원의 노외주차장 매입 계획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 부산시의 정책 이주지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반여2·3동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구덕 수원지 이재민과 영주동 및 초량동 고지대 철거민이 부산시 정책 이주를 시작으로 1991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 1992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으로 건폐율 90%, 용적률 400%인 현지개량 방식 실시에 따라 지금의 고밀도 인구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여2·3동 차량등록 대수는 6천806대이며, 주차장 현황은 총 2천176면입니다(2017년 기준). 결론적으로 4천630대가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 2건의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의 접근이 불가하여 건물이 전소되었으며,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8건이며, 2020년 일몰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해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여2·3동의 주차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현지개량 방식 사업을 도입한 부산시 주거정책의 심대한 판단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부산시와 우리 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반여동 1602-5~9번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문화재급 혜택 받는 더베이101

제232회 임시회 / 2018. 2. 13. 유점자 의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개발이 제한된 동백섬이지만 더베이101은 해양레저특화 사업으로 사기업의 건축허가가 났다가 개발이 중단된 것을 외식업체가 이어받아 요트를 빌려주는 퍼블릭 요트클럽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2층 건물 대부분과 옥상 공간까지 카페, 음식점, 술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맛집 소개 블로그 인용)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6호인 동백섬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었고, 문화재 보호대상인 동백섬은 지정구역과 지정구역 경계에서 500m 반경 안쪽의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 행위 등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베이101은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 문화재급 보호를 받으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따라 재산세 1억 4천7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 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내 현상변경허가 대상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이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베이101이라는 과밀 상업개발로 인해 교통, 환경 등 해운대의 도시구조 전반에 심각한 동맥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에다 수익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환경파괴 사업을 당장 멈추십시오! 41만 해운대 구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동백섬을 원상 복구시키십시오!



## 하천관리팀 신설에 관하여

제235회 임시회 / 2018. 7. 31. 김백철 의원

해운대구의 하천관리팀 신설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강은 정관 임곡리에서 수영1교까지 총 19.2km에서 우리 구가 8.2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수영강 리버 크루즈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석대천은 철마 안평리에서 수영강 합류점까지 총 7.75km입니다. 우리 구는 4.75km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석대천은 물안개가 아름다운 강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동천교를 중심으로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 먹이를 찾는 왜가리 등 각종 새떼,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어우러져 노는 모습은 생태하천 조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송정천은 기장 내리에서 송정2호교까지 총 4.7km이고, 우리 구는 1.77km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학생, 주민들의 재첩 잡기 행사가 개최되는 아름다운 하천입니다.

다음 우동천은 해운대 센텀 두산위브아파트를 끼고 동백우동 해안까지 1.99km 전 구간이 우리 관할인 하천입니다. 2009년부터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급수의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변신해서 지금은 지역주민의 산책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춘천은 장산계곡에서 동백교 인근까지 총 6.3km에 이르는 구간으로 신시가지 주민의 유일한 친수공간입니다.

이러한 주요 하천의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에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과에서 유재개량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수 인허가 부분은 개별 법령에 따라 건설과와 건축과가 나누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은 건설과 직원 1명 뿐입니다.

놀랍게도 부산시 16개 구·군 중 하천이 없는 중구를 제외하면 전담부서가 없는 구는 해운대구 뿐입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 등의 업무가 증가 하는 점, 타 구·군에 비해 하수시설이 길고 하수 발생 관할 인구가 월등히 많은 점, 관광시설과 연계한 하천 개발 필요성, 주민 친수공간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지연 대처 촉구

제236회 정례회 / 2018. 9. 14. 서정학 의원

반송 석대역에서 고촌역 간 2.92km 구간에 설치된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준공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촉구 말씀 드립니다.

석대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은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에서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준공하였으며, 분당 10.5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석대천의 건천화 및 수질 악화를 예방하고, 수생태계의 원활한 보존 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석대천의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모기 등 해충 발생에 따른 반송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지용수 공급체계는 동부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펌프질을 통해 반송중계펌프장으로 공급하고, 또다시 반송중계펌프장에서 고촌역 유지용수 공급시설에 하천 유지수를 공급하여 석대천 상부에서 방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반송중계펌프장까지는 정상적으로 펌프질이 가동되어 하천 유지수가 공급되고 있으나, 반송중계펌프장에서 고촌역 유지용수 공급시설까지는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석대천 상부에서 하천 유지수가 전혀 방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부산시에 유지용수 방류 요청을 하였다고는 하나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어찌 된 일인지 유지용수 공급에 따른 전기료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준공 후 8년간이나 사업비 25억 원의 시설을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때 부산시에서 약속한 분수 시설과 무대 및 조명 시설도 함구무언[緘口無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유지용수 공급시설의 미가동이 단순 전기료 미확보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숨기고 있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반송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난 8년간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가동되지 못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유도 함께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석대천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반송 주민들에게는 삶의 질과 같이 주민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을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수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유지용수 공급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신청사 건립에 대한 우리의 의지

제237회 임시회 / 2018. 10. 23. 박기훈 의원

지역의 최대 현안인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운대구청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법정주차대수 미충족) 등 열악한 환경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멈춰져버린 신청사건립기금 또한 저희 제8대 의회에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이 9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면 지난해까지 모인 신청사기금 100억 원과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00억원씩을 적립하고, 시비 150억, 지방채 200억, 세원 추가발굴 150억을 합치면 현 청사를 매각하지 않고도 해운대구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초에 신청사 건립의 첫 삽을 뜬다면 2022년도 말에는 구민이 바라는 신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해운대의 발전입니까?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이야말로 해운대구의 균형 발전의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은 저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민이 모두가 바라는 영원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또다시 선거이슈로 전락하여 주민간 다툼으로 추진이 미루어 질 것입니다

다 같이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시다. 또한 현 구청 인근의 상인, 주민 여러분! 현재 해운대구 신청사 이전 후 다른 발전 방안을 제시할 전문적인 TF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발전적인 관계기관을 영입하여 현 구청 지역의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해운대구는 부산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운대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크나큰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 개발하여 진정한 해운대의 균형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발 앞에 있습니다. 한발 한발 다 같이 나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적시적소에 대처하는 효율적 행정을 바라며

제237회 임시회 / 2018. 10. 23. 김백철 의원

해운대 신시가지는 10만 이상의 인구가 하나의 동으로 시작하여 2004년부터 4개 동으로 분동되어 동주민센터가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동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각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고민 해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 건물은 많은 이들이 찾은 만큼 손때가 묻어 건물 내외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특히 좌4동은 건물 신축 당시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 건물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실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이 많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에 있는 대회의실, 중대본부, 나눔가게의 경우 구조적으로 습해서 연중 제습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귀중한 냄새로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옥상 누수로 비가 올 때마다 동주민센터가 물바다가 되고 각종 고장으로 연중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좌4동 주민센터 신축을 제안합니다.

동주민센터는 공무원들의 근무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내 집처럼 드나드는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센터를 주민들께 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활동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동주민센터가 건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받는 장소로 방치된다면, 이는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마을 어느 곳보다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포근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올 4월에 좌4동문화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센터 건립으로 인해 침체된 마을 분위기가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좌4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최적의 때와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4동주민센터 준공과 함께 문화센터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동사를 임시 이전할 경우 이전에 따른 임시 동사 임대비용과 부대비용, 노력 등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중심 미래도시 구정 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좌4동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확보에 힘써주시시오.



##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마린시티가 위험하다

제237회 임시회 / 2018. 10. 23. 김정욱 의원

우3동, 일명 마린시티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1만 세대 이상의 수 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마천루의 스카이라인과 요트경기장, 영화의 거리 및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야간명소는 연중 수많은 관광객들을 넘나들게 합니다.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landmark)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매년 10월 초순까지 대규모 태풍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급기야 2016년 12월 마린시티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마린시티 앞바다에 폭 650m의 외방파제를 설치하고 마린시티 호안 780m 구간을 7m에서 25m 가량 매립, 정비하는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790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며 이 사업은 부산시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언론 보도를 접한 마린시티 주민들과 해운대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부산 MBC 시사프로그램에서 본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10월 19일 부산일보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마린시티 앞바다 방파제 설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보도가 나간 후에 아직까지도 우리 해운대구청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양의 정치역사에서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의 가장 큰 기본의무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전력을 구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시민 행복 해양수도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장님은 해운대 해상 방파제와 호안 공간 건설비가 전액 국비와 시비라고 하여 국가와 광역단체의 결정만을 기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구의 특성과 위기를 이들 상위기관에게 재빨리 호소하여 국가의 적절한 예산 집행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침착한 대응도 중요하고 정확한 방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한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고 민첩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비단 마린시티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전역의 위험지역을 살피셔서 더 이상 늦어짐, 초가을 태풍에 해운대구와 마린시티가 더 이상 언론의 요리거리가 되지 않기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 해운대 신시가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열요금 인하 촉구

제238회 정례회 / 2018. 11. 20. 임말숙 의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1996년 7월에 준공되어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4만3천세대 등에 온수를 상시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열수송배관 노후화로 열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수선비용 또한 증대되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7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열수송배관 72km에 대하여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열수송배관 노후화로 인해 2016년에는 전체 생산량의 7.3%, 2017년에는 8.1%가 지하로 사라졌습니다. 이를 도시가스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약 2016년은 18억원이며, 2017년은 2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열요금 징수 금액의 약10%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이므로, 금년 12월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누수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작업을 위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저온열 무상공급 부분입니다.

저온열은 온도가 65도로 아파트공급 적정온도인 95도로 만들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19,700원에서 60,000원 전후로 올라갑니다.

이때 소요되는 전기료가 연간 약25억원으로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시가지 주민이 사주지않으면 버려야 될 저온열이기 때문에 해당 전기료는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후배관 교체 및 저온열 완전 무상공급이 이루어지면 약20%의 난방비 인하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산환경공단 집단에너지사업소 경영개선 추진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시설운영자를 민간기업에서 부산환경공단으로 변경하여 연간 비용절감 31억, 판매이익 24억 증가라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 운영권을 에너지 공사로 넘기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좌동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부산환경공단이 계속 운영하기를 부산광역시에 요청합니다.



## 동백섬에는 동백꽃이 없다.

제238회 정례회 / 2018. 11. 20. 김상수 의원

최치원 선생의 동상이 있는 동백섬에 대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100년 전 최치원 선생께서 수려한 경관에 도취되어 동백섬 남쪽 암벽에 '해운대'라는 글씨를 새겨 해운대지명의 유래가 된 곳이 바로 동백섬입니다. 지난 5월 31일 부산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방문지 중에 해운대와 동백섬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관광지 10곳에도 선정된 동백섬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산 관광일번지입니다.

현재 동백섬은 단순히 산책하는 곳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해운정·최치원동상만 서 있을뿐, 지나치는 관광지로 전략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 풍광을 간직한 동백섬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고급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백섬에 동백꽃이 없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 옛날 최치원 선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동백섬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나무들이 동백섬에서 울창하게 자라면서 예전만큼 동백꽃이 많이 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카멜리아힐, 거제 지심도, 여수 오동도 등 동백군락지에는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동백꽃을 보기 위해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철나무 등 잡목들은 정리하고 동백섬에 동백나무를 더 많이 심어 동백군락지를 만들면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백섬의 이름이 동백섬인데 왜 동백꽃이 없냐?'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동백나무를 더 심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 좌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제안

제238회 정례회 / 2018. 11. 20. 최은영 의원

좌동에서 아이를 키워 군대에 보낸 엄마로서 청소년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좌동은 1만2천명의 청소년이 16개의 초중고교에 다니고 있는 부산대표 교육도시입니다. 하지만 좌동 신시가지 큰 건물마다 준비하게 학원들이 들어차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하나 없습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부족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공동체의 미래다.'라고들 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수요 밀집지역, 즉 좌동에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해운대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관 7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수련관, 문화놀이센터 등 대부분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복지시설과 관심을 쏟아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청소년이 많은 좌동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 하나 없다는 점은 어른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공공재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노는 아이가 스트레스지수도 적고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좌동지역에 꼭 지을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 옛 해운대역! 상업개발 아닌, 공원조성으로 주민의 품에

제238회 정례회 / 2018. 11. 20. 문현신 의원

‘부산시, 옛 해운대 철도역 정거장 부지도 공원화 추진’- 9월 12일 국제신문 기사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남짓 이후인 11월 14일, 같은 국제신문을 통해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연’이라는 정반대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거장 부지 개발 사업 주관기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서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과, 옛 해운대역 일원에 상업 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2013년 체결)가 유효하다는 철도시설공단 측의 입장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온 평생 기차길에서 나오는 쫓겨나고 먹고 사신 지역 주민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옛 해운대역과 정거장 터는 그들 삶의 역사이며 심장입니다. 80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소음과 진동은 물론 분진과 쫓겨나고, 매연 등을 온 몸으로 감내해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옛 해운대역은 그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주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해운대구는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5천만원을 받아 옛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운대구가 수립할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꿈이 아닌 현실로 그 모습 드러낼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개발사업자의 배가 부를수록 주민의 환경과 정서적 굶주림은 더해만 갑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해운대 구민만을 섬기며 진정으로 해운대 구민의 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마린시티, 안전거리 확보가 해운대 관광자원이다

제238회 정례회 / 2018. 11. 20. 원영숙 의원

마린시티는 최고층의 스카이라인으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최상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지만, 해안과 25m의 차이만 두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6년 12월에 마린시티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부산시는 2022년까지 마린시티 앞바다에 방파제 설치와 호안정비사업을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인 월파 피해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호안 정비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해일 방재를 위해서는 방파제 대신 5미터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5미터 차수벽 설치로 마린시티 안전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한 사항을 뒤집는 것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마린시티 재해예방을 위한 매립기본 계획을 수정하여, 매립 폭을 계획안인 7미터에서 25미터로 확대하여 영화의 거리 5미터 포함 총 30미터 폭의 친수호안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구남로가 폭 30미터의 광장으로 조성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관광명소가 되었듯이, 마린시티도 폭 30미터의 친수호안이 만들어진다면 주민의 안전 보장, 인접한 해운대해수욕장 연장 효과, 공간을 활용한 예술과 문화 광장 조성 등을 통해 해운대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 정책이주지역 골목길 전주전선 정비대책 마련

제238회 정례회 / 2018. 12. 14. 서정학 의원

반송지역 정책이주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 무계획적으로 설치된 전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지역은 도시기반시설 정비 없이 1970년대 조성된 정책이주지역으로 1991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면서 15평 내외의 3~4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들이 집단으로 건립돼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고밀도 주거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반송지역 정책이주지역 내에 형성된 골목길은 폭 2.4~4m 내외로 주거지 전용주차 및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는 물론 승용차량의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좁고 복잡한 도로상에 수많은 전주들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통행과 보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사 차량이 골목길에 들어오더라도 지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 통신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 차량의 작업이 불가능해 이삿짐을 넣지도, 빼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송2동 정책이주지역 내에만 해도 162개의 전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여 개소의 전주가 있는 골목에는 1톤 트럭도 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빈 집이 다수 발생되고 있지만 전주나 전선 때문에 이사를 들어올 수가 없어 빈 집 상태로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번 반송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재생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시 전주 및 전선 정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책이주지역 내 거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함께 전주 및 전선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구청과 관계 기관 주민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도출된 대안은 적극 실행시켜나가야 합니다. 반송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의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해운대의정

# 의원칼럼

(해운대신문)

발행월	발언자	제 목	비고
1월	서정학	반송·운송중 통폐합 폐교 활용방안 마련을	7대
2월	손유정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김삼수	귀천	
3월	서정학	반송미래 바꿀 세가지 변화에 주목하자	
	오경미	감미로운 느낌의 미학	
4월	서정학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다	
	황병두	안전한 통학로 없는 등하굣길 너무 위험	
5월	서정학	제대로 된 해운대수목원을 기대한다	8대
9월	박기훈	선하부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시키자	
	서정학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10월	김상수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문현신	마천루에 가려진 그곳	
12월	박기훈	리버크루즈 사업의 풀어야 할 숙제	



## 반송 · 운송중 통폐합 폐교활용방안 마련을

해운대신문 1월 서정학 의원

반송지역의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반송중학교와 운송중학교가 오는 2020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2020년 3월이 되면 현 반송중학교 건물은 폐교가 되고, 운송중학교는 반송중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운영을 하게 된다. 반송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특히 젊은층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머지않아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중학교의 통합결정은 왠지 반송지역의 현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폐교되는 반송중학교를 잘 활용만 한다면 반송지역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폐교재산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폐교되는 반송중학교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폐교의 활용범위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반송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다행히 해운대구청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2017년 3회 추경에 반영한 만큼, 반송중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점에서 구청과 지역주민의 역할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해운대구청에서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 주는 역할에 구청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럼, 지역주민들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까?

물론 반송지역의 주인으로서,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해야하는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폐교재산을 지역의 자산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의, 정치권과의 협력,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청의 노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힘을 보태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의 대표단체인 반송지구 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장서 줄 것이라 믿고, 지금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폐교재산의 관리주체로서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짧은 글을 마치고자 한다.



###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해운대신문 2월 손유정 의원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날 떠오른 해는 여느 때보다 더 힘차고 붉게 떠올랐고, 해맞이의 설렘으로 새 희망을 담아 두 가지 소원을 빌었다. 가족, 친지와 친구, 이웃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빌었고,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북관계가 올림픽의 걸림돌이 아니라 받침돌이 되어 안전한 지구촌 축제를 만들어 주길 빌었다.

지금 북한의 처참한 인권실태와 전쟁준비로 인해 핍박 받고 있을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진정한 대화의 장이 언제 열릴지 이산가족 상봉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잠시 잊고 있었던 어릴 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이북에 부모형제를 두고 실향의 아픔을 갖고 있던 아버지로 인해 매년 새해가 되고 명절을 맞이하면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가슴 아파했던 우리가족의 소원은 정말 진정한 통일이였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고향에 가시는 일이 꿈이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셨고, 가족상봉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동영상도 적십자로부터 종료를 알리며 집으로 배달되면서 우리 형제들의 간절한 소원은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졌다.

그러나 통일대박을 외치던 한 때는 부산서 출발하는 유라시아 행 열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으로 마음 설렘던 적도 있었고, 2017년 최악의 전쟁이 일어날까봐 가슴 조리는 공포의 날도 있었다. 이와 같은 한반도의 상황은 곡예를 하듯 위험하고 불안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휴전상태의 연속이다.

2018년 새해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북한정권은 신년사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해 왔고 믿어야 할지 의문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길 기대하면서, 남북대화의 단초가 되고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대로 된 올림픽이 되길 희망한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잦은 전쟁을 이 기간 동안은 휴전하고 화합과 공동선을 위해 평화를 기원하던 것으로 유래 된 만큼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올림픽으로 인해 화해와 평화의 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기대해본다. 북핵문제라는 남북의 가장 큰 숙제를 단번에 해결해내지는 못하겠지만, 30년 만에 열리는 국내 올림픽 경기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 나라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골든타임이 되어 평창올림픽 개최국인 우리의 명분과 지구촌이 함께 참여하는 실리를 챙길 수 있길 소원하는 바람을 새해에 부쳐본다.



## 貴賤(귀천)

해운대신문 2월 김삼수 의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천상병 시인의 歸天(귀천) 시구절이 아닌 이름 그대로의 귀천, 바로 귀하고 천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42만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환경미화원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운대구청에 속해있는 구성원 중 환경미화원 분들이야 말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험난한 곳에서 우리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시각까지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분들을 통칭하는 명칭에 있어서 수십 년 세월을 거쳐 고정관념에 박혀버린 하찮은 직업 혹은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버린 건 아닌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순찰을 하던 중 환경미화원 아저씨께서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아주머니들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청소부 지나간다. 천천히 가자. 냄새 난다 대략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과연,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취급받아야만 하는 직업인지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 일의 대가로 정당한 임금을 받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환경미화원의 급여가 그렇게 많다며? 그래서 젊은이들도 서로 하려고 한다며?라고도 하십니다. 과연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심지어 내가 쓰고 버린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일을 하는 고마운 분들인데 아직도 마치 머슴처럼 대하시는 분들을 보며 과연 우리는 언제쯤이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유력 후보들은 너나없이 환경미화원 복장을 하고, 광고를 찍기도 하고 아니면 공식 선거가 시작되는 첫 방문지로 환경미화원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 관심은 사라지고 마는 현실을 접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인 저 또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느 기사에서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당신은 우리가 고용한 머슴이야, 머슴이라고 갑질을 해 논란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한 마디 또한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은 열린 생각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해봅니다. 이분들을 표현하는 명칭도 한 번 바꿔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해운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을 클린(Clean) 지원단 혹은 클린 서포터즈(Clean supporters)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라도, 우리가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바꾸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환경미화원 종사자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 반송 미래 바꿀 세가지 변화에 주목하자

해운대신문 3월 서정학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정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여기에 지역경제가 튼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해운대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고루 갖추고 있다. 산과 강, 바다에 온천을 더해 사포지향의 명소라고 불린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여름 한철 관광과 중소기업인들의 생산활동이 주를 이뤘는데 좌동 신시가지, 센텀시티, 마린시티, 국제영화제, 컨벤션시설,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의 도시개발 호재로 부산의 강남이라 불릴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발전 과정에서 유독 반송지역은 소외돼 왔다. 현재 반송지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반송 근린공원 조성,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행복마을센터, 행복경로당 신축 등 민선6기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민이 느끼는 균형발전은 아직 소원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송의 미래를 바꿀 세 가지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내 최대 도심형 수목원인 해운대수목원, 2020년 폐교되는 반송중학교 활용방안이 그것이다.

얼마 전 구청 주관으로 폐교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청소년 진로체험사관학교(가칭), 중장년층을 위한 기술교육, 창업자와 작가들의 레지던스 공간, 체육시설과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해운대수목원이 진행형이라면, 반송중학교 폐교 활용은 시작단계인 사업이다. 반송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의제이다. 폐교되는 반송중학교를 잘 활용한다면 지역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과거부터 반송주민들은 지역 일에 다함께 힘을 합쳐 대처해 왔다. 반송중학교를 지역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송주민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좋은 기회다.



## 감미로운 느림의 미학

해운대신문 3월 오경미 의원

올 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테이블에 앉은 20대 여성이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 점원을 불러 항의하기 시작하더니 그 횟수가 3회에 이르렀다.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느림>의 저자 밀란 쿤데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실존 관계식을 제시하는데 속도와 망각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속도가 느려질수록 기억의 강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망각의 강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떠올릴 때 저절로 걸음이 느려지고,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싶을 때 빠르게 걷게 된다. 준비 기간이 충분한 시험에서는 내용을 나름대로 재구조화하고 행간의 의미를 직접 찾아보며 노트정리를 했지만,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은 시험에서는 닥치는 대로 외우기 급급했었다. 돌이켜보면 나름의 계획으로 천천히 내용을 새겨가며 준비를 했던 것이 더욱 의미있고 가치 있게 다가옴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제시했던 '느림'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저자는 기계화된 문명이 고착되어 버린 현 시점에서 느림의 미학은 하나의 이상주의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표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대의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계화된 문명에 속해 버렸고 그 문명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가치에 부합하여 살아가고 있다. 물론 '빠름'이라는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속단하는 것은 오류다. 정치를 비롯하여 모든 공공적인 상황에서 '빠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있다. 하지만 이 '빠름'에 너무 중독되어 '느림'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은 문제일 것이다. 기계화된 현대 문명속 추앙받는 '빠름'의 신앙에 반하여, 본인의 자유의지로 '느림'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져본다.



###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다

해운대신문 4월 서정학 의원

다가오는 2030년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인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2040년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을 따라잡고, 2050년대 OECD 국가들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1970년대 인구과잉을 걱정하였던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가 야기할 생산인구 감소,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부양부담의 확대가 예상된다. 부양부담 확대는 개인의 경제적인 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은 고령자 증가에 따른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래 노인복지의 핵심은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또 하나의 요인은 고령자에 대한 노동 수요라 할 수 있다. 고령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노동수요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체계적인 구인구직 활동 지원시스템 마련, 민선6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 등 공공일자리 확대도 필요하고, 관내 경비용역 업체 등과 연계해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기업체가 적극 앞장서는 사회적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청년 노동력과 고령 노동력의 대체성이 높지 않으며, 고령층의 고용촉진이 청년층의 실업을 증대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정책은 이제 재정 부족에 따른 정책대상의 한정(저소득층 중심),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등 그동안 보여준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적절한 조직을 갖추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재원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공약화하고, 이를 이행해 주기를 희망한다.



## 안전한 통학로 없는 등하굣길 너무 위험

해운대신문 4월 황병두 의원

반송동 운봉길113에 위치해 있는 반송여자중학교의 보행자 도로가 없는 등하굣길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반송여자중학교는 올해로 개교 38주년을 맞이함에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로 즉 보행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의 통학로 주변에는 항상 양 방향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차량의 교행도 힘들 뿐 아니라, 차량들 사이로 요리조리 비켜가면서 매일 복잡한 길로 통학할 수 밖에 없어 등하굣길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고, 비가 내려 우산을 들고 가는 날에는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학교 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보행인도가 없어 차량과 뒤엉켜 등하교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도 빈발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고, 특히 본 의원이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과 안전도시국장에게 계획과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또한 상임위 회의에서도 소관 부서에 수차례 질의를 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답변 시 2016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집행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서 직원의 인사이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 때문일까요?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필요합니다.

반송여중의 통학 도로는 예전에는 차량 통행이 적어 별 문제가 안 되었지만 지금은 학교 인근에 2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운봉마을 인근 개좌골에 부산시가 유치한 대형화물 공영 주차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도로 기능은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화물주차장 출퇴근 차량과 정관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이곳 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 기능은 이미 마비되었고, 또한 동부산대학교 통학버스가 등하교 시간과 맞물려 더더욱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해운대구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업임을 주지하시고 동부산대학교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와 동부산대학교 진입로에서부터 운봉마을 입구까지 도로 확장과 반송여자중학교 통학로 인도 개설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주인공들이 학교 등굣길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보행로 확보와 운봉길 도로 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대로 된 해운대수목원을 기대한다

해운대신문 5월 서정학 의원

해운대수목원은 석대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19만 평 위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형 수목원이다. 과거 반여·반송지역의 낙후된 모습을 대변하였던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지고 그 위에 멋진 수목원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반여·반송 주민들의 가슴을 충분히 설레게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11년 착공 이후 당초 준공 계획이었던 2019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해왔던 멋지고 아름다운 수목원의 모습은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가 많고 아직까지 1단계 공사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2단계 공사는 토지보상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토지보상비가 많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침출수 유출과 지반 침하 우려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부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이행종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이행종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고, 그렇게 되면 수목원의 핵심시설인 온실과 산림전시관, 수목연구소 등을 건립하지 못하게 되어 정식 수목원 등록조차 불가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당초 계획된 2019년 말 전체 준공은 불가한 상황이고,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준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어서 개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예산확보를 비롯해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이행종료 조속 승인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된 해운대수목원이다.



## 선하부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생시키자

해운대신문 9월 박기훈 의원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해남부선이 개통한지 2년여 시간이 경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긴 배차간격, 편의시설부족으로 이용객이 느끼는 만족감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용객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선하부지를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선하부지에 잡초들만 무성해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뉴욕의 로우라이나나 서울 옥수역 주변과 같이 문화공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버려진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동해남부선 역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공연, 베틀시장을 열어 특화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선하부지에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장년층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선로를 받치는 다리기둥에 매년 벽화그리기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느 도시보다 유명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바다가 있는 해운대와 함께 지역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되어 동해남부선 활성화와 함께 수영강의 크루즈사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해운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고 지역의 명산장산이 있으며, 수영강과 온천이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바다, 산, 강, 온천 뿐 아니라 주민들이 즐겁게 생활속에서 문화 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국적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부지를 활용한 문화체육 공간 조성은 우리 지역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또한 해운대구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사업이라 자신합니다.



###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겠습니다

해운대신문 9월 서정학 의원

제8대 해운대구의회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 간다.

지방선거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참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13선거는 ‘인물’보다는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가 대다수였고 지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풀뿌리 생활정치 이슈 또한 부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선거였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주민들의 준엄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재선 구의원으로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자 한다.

민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해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주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을 뽑아서 대의제의 원칙에 따라 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 집행되는 구의 업무를 감시·조정·견제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정당 쏠림 현상을 두고, 이번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격이 되어버렸다’며 ‘구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말하기 앞서 주민의 실망과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하지 않나 뼈저리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머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꼼꼼히 챙기는 구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해운대신문 10월 김상수 의원

이 시대는 공정성을 추구한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떤가. 때로는 갑을관계를 연상케한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동등한 기관으로,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하는 상부상조의 관계이다.

집행부는 조직과 시스템으로 최고의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원칙,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민주주의 기본원리(상호존중, 타협)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

의원들은 집행부 정책에 의문이 나는 부분에 있어 정당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자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소통과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다. 웬만하면 공무원과 의원이 서로 만나서 대화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어떨까. 서면자료로 전달되는 정보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공무원을 통해 행정절차와 현장상황을 듣고 대화와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생각과 행동으로 의원은 다양한 민의를 친절히 수렴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원들이 청사에 자주 나와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민의 생각과 꿈이 존중받는 해운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바란다.



## 마천루에 가려진 그곳

해운대신문 10월 문현신 의원

‘부산시, 옛 해운대 철도역 정거장 부지도 공원화 추진’

이번 9월 12일자 국제신문 기사 제목이다.

2013년 문을 닫은 옛 해운대역은, 그 후 끊임없는 주변 난개발의 도사림 속에 은밀한 개발 추진의 위기를 거듭 넘겨왔다.

그러한 작금의 상황 속에, 정거장 부지까지도 상업적 개발이 아닌 공원화 추진이라는 이번 방향 설정은 두 팔 벌려 대단히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쇠가루를 내 평생 다 묵고 살았다 아이가”

옛 해운대역 인근에서 온 세월을 살아낸 주름 깊은 어르신 말씀이 귓전에 맴돈다.

기차가 지나갈 때 얼굴로 물이 튀는데.. 그게 오줌물인 줄도 모르고 맞았다는 그 어르신의 회상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라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다며 그저 순응하고 살아 준 순박함이 묻어난다.

옛 해운대역과 정거장 터는 그들 삶의 역사이며 심장이다.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음과 진동은 물론 분진과 쇠가루, 매연 등을 온 몸으로 감내해가며 살아 온 그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함이 마땅하다. 이제는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줘야 한다.

부산시의 방향이 설정된 만큼, 옛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하거나 직접 매입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직접 매입할 만 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 따라서 공은 이제 저 위로 넘어갔다고 하겠다.

우리 주민에게 그 동안 환경이 준 불편을 이제쯤은 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자애롭고 현명한 답안을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표방하는 해운대구의 구민으로서, 공원화 추진의 큰 결심을 해 준 오거돈 시장에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폭염이 지나고 와 달는 바람도 제법 선선하다.

해운대의 향긋한 바닷바람이, 다시 될 그들의 심장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리버크루즈 사업의 풀어야할 숙제

해운대신문 12월 박기훈 의원

해운대하면 바다가 먼저 생각날 것이다.

이제 그 해운대바다를 넘어 수영강을 부각시키는 “리버크루즈” 사업을 시작하려한다.

리버크루즈사업은 우리나라 관광객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의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것이다.

리버크루즈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사업구간에 볼거리가 많아야 한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경관조명 사업과 LED로즈가든 등 관광콘텐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버크루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송정~해운대~좌수영교까지의 관광특구를 현재 공사중인 동해남부선 원동역(2020년 완공예정)까지 확대하여야한다.

리버크루즈사업은 현재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출발(예정)하여 좌수영강까지 왕복 8km 구간을 운행한다.

그러나 관광객이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여름에는 교통혼잡과 주차난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업 성공을 위해 현재 공사중인 원동역에 계류장을 만들어 동해남부선과 해운대 바다로 연계된 관광 상품을 출시하여 동해남부선경전철을 이용하여 리버크루즈를 타고 바다로 가는 코스를 개발해야할 것이다.

울산 등 인근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코스인 수영강 리버크루즈 사업은 관광객이 줄고 있는 해운대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원동역에 경관조명 등을 리버크루즈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동해남부선 활성화와 리버크루즈 사업성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해운대의정

# 의/정/스/케/치/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council.haeundae.go.kr](http://council.haeundae.go.kr)





▲ 제8대대회 개원식



▲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 부산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 채택



▲ 해운대역사 공원화 축구 대회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선하부지 체육시설 예정지 시찰



▲ 주거지 전용 주차 시설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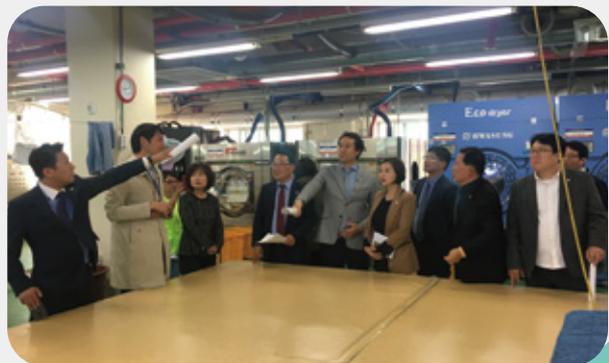
▲ 신시가지 공동구 관리사무소 공사 현장 시찰



▲ 신시가지 공동구 현장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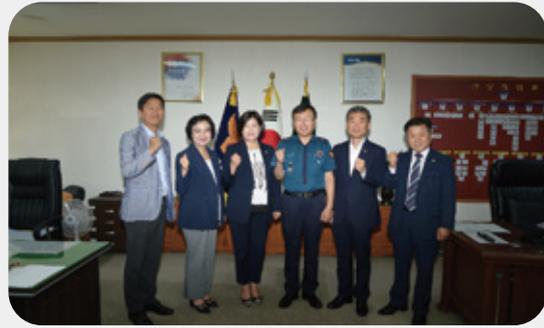
▲ 청소년 복지 시설 현장시찰



▲ 장애인 자활사업장 현장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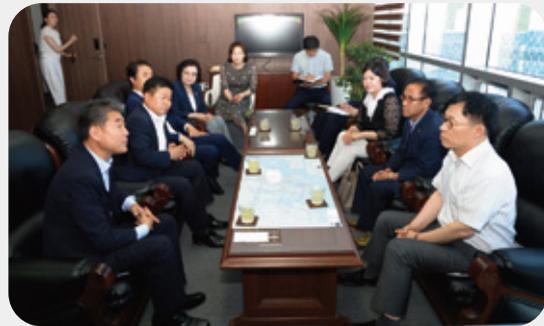
▲ 해운대학교청 방문



▲ 해운대경찰서 방문



▲ 해운대소방서 방문



▲ 부산관광공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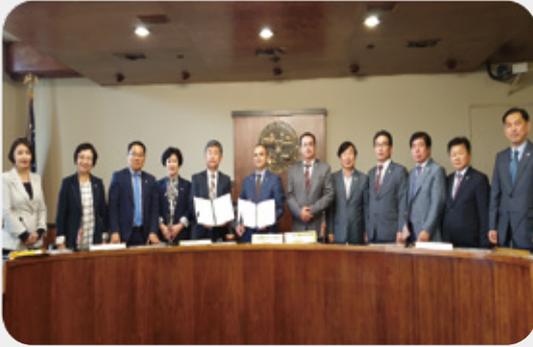
▲ 해수욕장 청결 활동



▲ 해수욕장 근무자 격려



▲ 헌혈 협약식



▲ 글렌데일시의회 우호협력도시 협정



▲ 글렌데일시 소녀상 방문



▲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교류협정 체결



▲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축제 참관



▲ 로스앤젤레스시 재난방재센터 방문



▲ 드림웍스(영화사) 본사 방문



▲ 글렌데일시 도서관 한국도서보내기(새마을 문고)



▲ 글렌데일시 도서관 한국도서보내기(자원봉사센터)

# 의정스케치

## ◆의회체험교실



## ◆국내연수·교육·오리엔테이션



▲ 상반기 국내연수(설악산)



▲ 8대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 하반기 국내연수(경주)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편성 교육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선진의회

## 해운대의정

HAEUNDAE GU COUNCIL

### ◆ 해운대구의회는

의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 참여를 위해 모든 의회 진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 여러분과 더욱 더 완전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 ◆ 방청안내

구민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진정안내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구의회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청원안내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성명 날인 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발행처 해운대구의회 | 발행인 의장 이명원 | 편집 의회사무국

4809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TEL 051-749-4091 FAX 051-749-4099 <http://council.haeundae.go.kr>



해운대구의회  
HAEUNDAE-GU COUNCIL